

## 제 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에 다녀와서

조 정 화\*

IFLA 글래스고대회에 참가한 느낌을 인천공항 출발을 기점으로 하여 돌아올 때까지 일정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IFLA 대회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최대의 행사이며, 이러한 대회에 한 기관의 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했다는 것은 분명 큰 행운이요, 행복이었다. 8월 18일에 인천공항 출발을 기점으로 8월 28일 귀국할 때까지 나는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모른다.

날씨마저 우리를 축복하는 양 이번 행사기간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영국의 평상시 날씨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정도로 쾌적하고 화창하여 대회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먼저 대회등록을 한 후 모든 자료가 포함된 IFLA 로고가방을 등에 매고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IFLA 참가회원들이 동시에 참석한 개회식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성대하였다. 이어진 각 세션장에 있어서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대회 행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영어로 진행된 대회식의 참석은 그야말로 하나의 고통이었다. 의사표현은 서투르나마 어느 정도 하겠는데,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다. 그러나 세미나 참석은 미리 발표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읽고 갔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책을 읽어 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네덜란드 사서와 정말로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 문을 활짝 연 싱가포르 사서의 주제발표에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영어공부를 더해서 2006년 한국 대회에서는 '성북정보도서관'을 모델로 하여 주제발표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개회식 및 세미나 참석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잠시 휴식하기 위해 호텔로 돌아온 나는 점심식사도 거른 채 그만 잠에 빠져 떨어지고 말았다.

눈을 뜨니 오후 6시, 6시 30분으로 예정된 글래스고시장초청 대회기념 리셉션에 참가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 부리나케 준비하고 뛰어가니 입구부터 만원이었다. 리셉션장은 협소하였으며, 게다가 음식마저 부족하여 참가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식사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글래스고만찬은 이렇기보다 하면서 레드 와인을 곁들여 한국 참가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수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낮잠에 빠져있는 동안 벌써 몇 기관을 견학하고 돌아온 뒤였다. 은근히 주최측에 대한 원망이 생겼다. 처음 참석자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도서관 견학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후

\* 성북정보도서관 운영팀장

에야 접수하였고, 호텔 로비에 진행일정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어 불편한데다 호텔이나 인포메이션 데스크 등에서 사용하는 영어도 현지인 중심의 빠른 사투리 영어로 곳곳에서 참석자들이 당황하였다. 이러한 주최 측의 다소 허술한 준비로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한 경우 불편하였으며, 그 불편은 참석자들에게 첫인상을 좋지 않게 갖도록 하였다.

이튿날인 8월 20일 화요일, 일찍부터 관심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둘렀다. 회의장이 복잡하여 묻지 않으면 혼자서 찾아가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이나 시간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애를 먹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자료를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읽고 간 세미나 참석은 즐거웠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 세미나 참석은 한마디로 고역이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을 얼마나 한탄했던가... 나중에 참석자들을 위해 조언한다면 반드시 오랜 기간동안의 영어준비를 반드시 하고 참석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IFLA 대회참석보다 관광에 치우치게 된다.

결국 세미나 참석은 포기하고 도서관을 견학하기로 하였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서 몇 분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글래스고대학도서관과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미첼도서관을 방문하였다. 고품 있는 건물과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지만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인지 은근히 실망도 되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국립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음악회로 향했다. 외국에서의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모인 같은 직업을 가진 사서들만의 음악회라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IFLA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자가 경과할수록 진행상황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반복되었고, 여기저기서 불평소리가 시작되었다. 처음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면서도 마음에 품었던 불만을 깨끗이 씻어 주는 흥미있는 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Tatto Festival이요, 다른 하나는 카네기 생가와 도서관 방문이었다. 철강왕으로 알려진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생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 2,918개의 도서관을 지은 훌륭한 사람이다. 평소에 존경하던 인물을 그것도 태어난 생가와 그가 지은 최초의 도서관을 방문하는 감회는 정말로 남달랐다. 지나친 곳마다 카네기의 숨결을 느끼면서 나는 과연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특히 방문자들을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공원 안에서의 성의 있는 만찬과 안내자들의 친절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다.

전 세계의 사서들을 또 한번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Tatto Festival, 스코틀랜드 근위대의 행진과 멋진 연주, 그리고 머리 위에서 폭발하는 불꽃놀이, 손과 손을 맞잡고 부른 노래... 그렇게 우리는 1시간 30여분을 열광했고, 준비된 버스를 타고 새벽 1시 30분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날 8월23일 금요일 아침 새벽 5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런던에 도착한 후 영국국가도서관을 방문했다. 대영박물관에 있던 것을 따로 분리하고, 영국 전역 7군데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 1997년 10월 부분 개관하고 2년 뒤에 완전 개관한 새롭게 단장된 영국국가도서관, 그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을 드러내고 세련되게 서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서 2조로 나뉘어 안내자를 따라 견학은 시작되었다. 한 나라 도서관의 대표들이 방문하는데 적어도 중간관리자가 나와서 환영하고 친절한 안내를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자세는 합리적

이지 못해 무성의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걸어서 대출하려면 1주일 걸리는 것을 단 1시간여분으로 단축시킨 전도서관의 자동화시스템, 1층 중간에서 위로 향해 밖으로 보이도록 전시된 조오지 3세의 개인 문고, 도서관 장서를 컴퓨터 상에서 터치만 해도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시스템, 자체적으로 다르게 디자인된 11개의 열람실, 생긴 외모답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사서 등은 까다롭게 구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했다.

점심식사 후 우리는 윈저성과 웨스트민스트 사원을 견학했다. 윈저성은 현재 영국여왕이 거주하고 있는 않지만 옛날부터 왕궁의 기능을 하던 곳이라 그 규모와 웅장함은 과거 '지지 않는 태양 영국'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는 듯했다. 그 웅장함에 대한 탄복은 그 다음날에 방문한 대영박물관, 국회의사당, 버킹검궁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영박물관은 상상을 초월하는 웅장함과 방대한 자료로 우리를 압도했다. 나중에 배낭여행으로 와서 대영박물관만 일주일 정도 다시 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이 박물관 안에서 너무나 귀중한 것을 접하지 않았던가? 문헌상으로만 접하던 Antonio Panizzi와 그의 정열을 만나지 않았던가? 저자명 기본기입을 개발했고, 건물 내부를 도서 분류에 따르도록 함의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그가 관장으로 재임시에 대영박물관을 전 세계의 2대 도서관으로 끌어 올린 인물, 마치 그를 기리듯 다른 것은 모두 영국국가도서관으로 이관하였는데, 함의 형식으로 된 그 방만은 대영박물관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국국가도서관과 런던 방문을 끝으로 58명의 참석자들 중 A조 29명은 한국으로 돌아 갔고, B조 29명은 유로스타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이어진 풍경들은 그냥 영국 농촌을 이어 놓은 듯 평화로와 보였다. 오후 9시 50분에 파리 도착, 이어서 호텔로 이동하면서 관광버스 밖으로 보여진 파리풍경은 밤이라 그런지 음산하기만 하였다.

이튿날 8월 25일 일요일, 우리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 대하던 파리의 명소들을 다녔다. 대영박물관이 역사유적의 집적지라면 루브르 박물관은 예술품의 집산지이다. 레오라드로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 밀로의 비너스 등을 보면서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을 거닐면서 파리의 정취를 마음껏 누렸으며 그 정취는 에펠탑 앞에서 거의 최고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에 세느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고 본 파리의 모습은 하나의 예술작품의 연속이었으며, 전등이 켜져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에펠탑은 파리의 자랑이자 생명이었다.

파리 시내를 마음껏 즐기고 난 우리는 다음날 8월 26일 월요일에프랑스국립도서관을 방문했다. 마치 4개의 책을 펼쳐 놓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 앞에서 우리는 주눅이 들었다.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테랑 대통령이 건립한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하루 이용자가 일반 2,300여명 연구자 2,000여명인 도서관, 장서 수 1,200만권에 직원 수 2,100여명인 도서관,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입구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공항입구에서처럼 가방수색 뿐만 아니라 몸수색을 하는 데서 완전히 기분을 잡치고 말았다. 아무리 장서수가 많고 귀중해서 폭발을 염려한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해서 방문하는 집단이 아닌가?

어쨌든 영국국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전 도서관의 자동화시스템, 미리 대출예약을 받았다가 이용자가 오면 즉시 자료를 이용케 하는 배려, 가장 우수하다는 아프리카산 나무를 수입해서 만든 서가나 계단 등 그들의 도서관을 사랑하는 정신은 본받을만 했다.

공식적인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TGV를 타고 스위스의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에 몸과 마음을 모두 묻어 버렸다. 온통 흰 눈으로 덮인 몽블랑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또 얼마나 즐거워 했는지는 본 IFLA 방문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술은 생략하겠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지난 기간을 되돌아 봤다. 분명히 여러 형태의 리셉션 참가, 국립콘서트홀에서의 음악회 감상, 그리고 에딘버러에서의 Tatto Festival 관람 등은 IFLA 대회참석이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의 사서들과의 만남 및 외국 사서들과의 교류는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재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참석자 전원을 IFLA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결속시키지 못하고 몇몇 친한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전락시킨 점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점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난 10일동안 함께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출발 전에 모여서 대회 참석준비를 했던 것처럼 귀국 후에 사진도 교환하고, 추억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제68차 IFLA 대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북구도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님, 그리고 지금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신 전 이기홍 기획관리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보다 절실히 느낀 점은 놀랍게도 새롭게 발전하는 세계의 도서관 현장을 피부로 느꼈으며,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우리도 뒤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제회의 등에 더 많은 도서관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전문을 넓히도록 하고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능력이 필수적으로 배양되어야만 하겠다.

### 내년 이후의 IFLA대회 개최지

- 2003 Berlin, Germany
- 2004 Buenos Aires, Argentina
- 2005 Oslo, Norway
- 2006 Seoul, Korea
- 2007 Durban, South Africa